

#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http://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5:13-14)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2020년 8월 30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창 16:6-16

제목 : 성찰하는 신앙 · 회복되는 형상(5)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말씀 :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창 16:8)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  
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를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60년대에 한동안 회자되었던 고 최희준 가수(본명 최성준 2018년 8월 24일 향년 82세로 작고)가 부른 노래 하숙생의 가사가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말자 미련일랑 두지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1965년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로 불려지면서 크게 히트를 친 노래입니다.

아 노랫말에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가?”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묻는 이 질문은 하숙생의 가사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묻는 질문 중 <어디>라는 단어는 최악 된 인간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따 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수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창3:9) 고 물으셨습니다. 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느냐? 회개를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창4:9) 라고 물으셨습니다. 우애가 돈독한 형제간에 사랑을 못하고 죽었느냐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갈에게 묻는 질문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갈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삶의 위치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고 질문한 후에 다시 너의 여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순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본문의 배경>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한지도 10여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래와 아브람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늙어가

게 되자 사래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 사래에게는 여종이 하나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갈입니다. 창16:1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기서 <생산치 못했다>는 말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자식이 들어서지 않았다는 말>이고 <그에 대하여 깊은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자가 아들을 못 낳으면 정말 수치로 여겼습니다. 사래에게 여종이 있었습니다. <하갈>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도망자>입니다. 출신은 애굽입니다.

여기서 <여종>이란 <취프하>입니다. <여종>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로써 <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프하>는 <아마> 보다 가족에게 더 가까울 때 사용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여종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여종이 <취프하>입니다. 그 여주인의 측근으로써 여주인에게 시종 드는 역할을 하는 개인적인 하녀입니다. 아마 하갈도 사래에게 시종을 들던 정말 사래가 아끼던 여종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자 마음이 조급해진 사래가 아브라함을 재촉을 합니다. 16:2입니다.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이곳에서 사용한 <원하건대>라는 의미는 <제발 부탁이니> 그런 <간절한 애원>을 말합니다. 이런 사래의 애원을 아브람은 들었습니다. <들으니라>의 단어는 <샤마>입니다. 사래의 간곡한 권유와 자신을 희생하는 그 행동에 아브람이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암시해주는 단어입니다. 이리하여 하갈은 아브람의 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래가 사랑하고 아꼈던 하갈이 아브람과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16:4입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곳에서 <멸시한지라>의 단어는 <가볍게 여기다>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주인>이란 단어는 <무겁다 강하다>란 의미입니다. 하갈에게는 강하고 무겁게 여겨졌던 사래가 이제는 하갈에게 아주 가볍게 여김을 당하고 있다는 기록입니다. 입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잠언 30장 21절 이하에 보면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너 개 있다고 합니다. 무엇 일 까요?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21.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22.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23. 미움 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여종이 주모처럼 되는 것은 정말 세상을 진동시키며 인간의 마음을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사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종처럼 고분고분 하던 것이 아기를 갖게 되자 주인 행세합니다. 배를 내밀면서 과시를 합니다. 종처럼 부리던 하갈에게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합니다. 속이 뒤집혀서 견디다 못한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합니다. 창16:5-6입니다.

"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6절에서 <학대하였다>는 동사는 <강의형>입니다. 사래가 아주 혹독하게 하갈을 괴롭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인들의 싸움에 눈에 불꽃이 튼다. 얼마나 사래가 하갈을 혹독하게 대했으면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을 갔겠습니까? 이게 이조시대 사극에서만 보는 여인천하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한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망쳐 나온 하갈과 하나님의 개입>

도망쳐 나온 하갈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자기의 고향 애굽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서글픈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태어나서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일까요? 이렇게 고국을 떠나 타향에서 종처럼 살고 싶었을 까요? 그것도 주인의 첩이 되어서 주인의 자녀를 임신한 것도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아마 하갈도 아브람의 가정에서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소연도 했을 것입니다.

하갈은 막상 도망쳐 나왔지만 갈 곳이 망막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

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원문의 글자대로 번역을 하면 <그러자 여호와와 사자가 그녀를 찾았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 같이 여호와와 사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곤핍한 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와 사자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곤핍하고 곤고한 자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고 다시 곤곤한 상태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신 주님이십니다. 고기를 풍족히 잡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에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2절입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 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곤고한 하갈에게 여호와와 사자가 찾아온 곳이 술 길 샘 곁입니다. 이곳에 오아시스가 있으며 성벽이 있는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름을 <술:성벽>으로 불렀습니다. 팔레스틴 서남쪽, 애굽의 북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애굽의 북동쪽에 위치했으니 아마 하갈은 고향으로 가려고 이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 술 길의 샘 곁에서라고 했습니다. 원문에는 샘 앞에 정관사 <그>가 있습니다. 특정한 샘 곁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많이 아는 샘물일 것입니다.

그 샘 곁에서 하갈은 원통한 마음으로 목을 축이고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왜 내 삶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배속의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 지 등등들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곤고한 시간에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시면서 갈 바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을 부르기를 사래의 여종 하갈이라고 했습니다. 너의 신분은 사래의 여종이라는 것을 자각시키며 하갈이 있어야 할 곳을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어디서 왔으며>란 질문은 하갈의 과거에 대

한 질문입니다. 네가 아브람의 집에서 사래로부터 사랑을 받던 그 과거의 복된 삶을 버리고 그 위치를 버리고 그 처소를 버렸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란 질문은 불확실한 미래로 왜 가려하느냐에 대한 책망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애굽으로 너를 반겨줄 사람도 없는 곳으로 최악이 가득한 곳으로 왜 가려는가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하갈은 자신의 현 상황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대답을 보면 하갈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래를 나의 여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여주인을 멸시한 점을 겸허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서는 안 되는 데 도망친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사실 하갈은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아마 자신의 이런 고통으로 얼룩진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에게도 벗어나고 싶은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벗어나고 싶은 상황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우리나라의 현실과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마 모든 크리스찬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을 내립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의 위치에서 도망하지 말고 돌아가서 그 위치에서 네가 할 일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쳐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갈수 있을 까요? 참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하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줍니다. 11-14입니다. “11.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 그가 사람 중에 들 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인생을 다루십니다.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는 측량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모든 것을 구원의 역사를 위해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십니다. 아마 하갈은 하나님의 이런 섭리에 크게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은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는고 함이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주셨는지? 큰 위로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 이 우물에서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우물은 그리스도예수의 그림자입니다.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남편 다섯에게 버림받은 수가성의 여인도 우물결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았습시다. 우물결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기쁘게 사라에게로 돌아갔습시다. 가서 사라를 잘 섬겼습시다. 그 것이 분명한 것은 15-16을 보면 압니다. "15.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육 세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은 하갈의 길처럼 어떤 때는 참 불공평 하게 보이는 일이 많습시다. 누가 종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시다? 그것도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종처럼 살고 싶은 자가 누가 있겠습시다? 누가 첩으로 살고 싶었겠습시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아브람의 아기를 갖고 억울하게 쫓겨나고 싶은 자가 누가 있겠습시다? 정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삶이 회복하기가 어렵습시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오늘도 돌보시고 계습시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습시다.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브엘라해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습시다. 삶이 힘들고 상황들이 불공평한 것 같아도 정말 내 삶은 왜 이리 뒤죽박죽이지 그런 상황이라도 또한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현실이라도 그 현실에서 도망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하습시다. 위에

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나타내 보일 줄을 믿습시다.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입니다. 어머니는 기생입니다. 길르앗의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기생을 첩으로 두었습시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입다입니다. 입다는 아버지 집에서 잘 자랐습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길르앗의 본처들이 아들들을 낳았습시다. 본처의 아들들이 성장하자 힘을 모아서 입다를 내어 쫓아내었습시다. 쫓김을 당한 입다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쫓김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태어날 때 엄마가 기생이었을 까? 왜 첩의 아들로 태어났을 까? 인생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쫓겨나서라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시다. 실력을 길렀습시다. 용사가 되었습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지냈습시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습시다. 하나님은 때가 되니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을 치게 하였고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태생이 좋다고 다 좋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출생이 나쁘다고 다 나쁘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은 정말 비천한 인생을 살았습시다. 종으로써 살았습시다. 아브람의 아들을 임신하고 사라로부터 혹독한 고통을 당해서 도망쳤습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갈에게 다시 종으로 돌아가서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 위치에서 오늘 할 일을 다 하라는 말입니다. 하갈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나의 처지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라도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아무도 측량 못합니다.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라도 그 안에서 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19가 처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시다. "금성교회 담임목사인 성오야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의 위치에서 힘들어도 도망치지 말고 다시 최선을 다하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빛나는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시다.